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최연희¹ · 김나영²

경북대학교 간호대학¹,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²

Influence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Bullied Children on Bullying: Ego-Resilience Mediation

Choi, Yeon-hee¹ · Kim, Na-young²

¹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²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bullied children. The focus in this study was on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02 bulli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years 5 and 6.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analysis with the SPSS/WIN 19.0 program and Amos 19.0. **Results:** First,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ego-resilience,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 between ego-resilience and bullying, and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bullying were found. Second,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as a mediator between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bullying were significant statistically.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educational programs for parents are needed to improve parent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their rearing attitudes toward bullying an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bullied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their ego-resilience.

Key Words: Child, Bullying, Parents, Resilience, Child rear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요즘 인터넷과 TV를 통해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유서를 쓰고 자살하는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폭력의 잔인화로 학교폭력의 피해정도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

으며 이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Adolescent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AVPF], 2012). 청소년 폭력예방재단(AVPF, 2012)이 조사한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으며,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1,677명 중 31.4%가 1번 이상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63.4%가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특히, 초등학교의 폭력 피해가 상당히 심

주요어: 아동, 집단따돌림, 부모, 양육, 자아탄력성

Corresponding author: Kim Na-young

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390 Taejeon-dong, Buk-gu, Daegu 702-723, Korea.
Tel: +82-53-320-1757, Fax: +82-53-320-1761, E-mail: Kimny@tsu.ac.kr

투고일: 2013년 1월 22일 / **심사완료일:** 2013년 5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8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각한데,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72.9%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 1~3학년이 26.5%, 초등 4~6학년이 46.2%, 중학생 24%, 고등학생이 3.3%로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AVPF, 2012). 또한, 서울, 경기 지역의 초, 중, 고 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Kim (2011)의 연구결과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가 많았다. 이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보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의 피해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더욱 증가하여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2인 이상의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학생은 전체의 67.9%로,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AVPF, 2012), 2인 이상의 학생에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즉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소외시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음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일체의 행위인 집단따돌림으로 볼 수 있다(Khu, 1999). 교육과학기술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12)의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자료에 의하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64.5%로 학교폭력의 유형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이란 용어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bullying, harrasment, peer abuse, mobbing 등과 일본의 이지메라는 표현 등이 있다. 집단따돌림을 bullying으로 정의한 Olweus (1978)는 한 학생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 행위에 노출되었을 때 집단따돌림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동기에 또래관계에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통해 아동의 우울, 불안, 외로움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1). 따돌림 피해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았으며(Jung & Cho, 2011), 피해아동은 굴욕감, 적대감, 복수충동, 절망감, 불안, 공포 등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고,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때 가출, 범죄, 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AVPF, 2012).

집단따돌림의 영향요인에는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변인들

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ontzer & Daniel, 2010). 이는 가정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초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우게 하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발달에 있어 가장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Jung & Cho, 2011). 부모의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자란 아동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업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학교에 대한 감정,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다(Ha & Lee, 2009).

이처럼 아동의 친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또 다른 개념으로 자아탄력성을 들 수 있다. Rutter (1985)는 환경의 역경과 스트레스적 상황 조건하에 놀랍게 잘 기능하고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아동을 발견하고 그러한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라고 언급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 위협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긴장, 인내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된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삶은 의미가 있으며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외향적이며,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특성을 가지며(Ku, Hwang, & Kim, 2001), 아동의 높은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Ha & Lee, 2009).

지금까지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학교생활 적응 등의 변수가 사용되었고(Kim, 2009; Kim & Kim, 2011),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한 연구는 소수이며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집단따돌림 피해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집단따돌림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초등학생 고학년에 속하는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집단따돌림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보건교사가 집단따돌림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라는 아동의 보호요인이라, 내적 자원을 발달, 증진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보건교육 프로그램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3. 개념적 틀

본 연구는 여러 문헌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개념적 틀을 도출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Ha와 Lee (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이고 애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아동은 자아탄력적이라 하였으며, Kim과 Kim (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미있고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Roh (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하여 두 변수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자아탄력성으로의 인과성을 추정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Choi와 Chae (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집단따돌림 피해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Jung과 Cho (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따돌림 피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Chae (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온정적, 애정적 태도가 낮을수록 공격적, 무시적, 거부적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집단따돌림으로의 인과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수이나, 관련성이 있는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와의 관련성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과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Hur (2004)의 연구와 Kim (2009)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이고 또래관계에서 적응수준이 높았다. 또한, Chae와 Song (2004)의 연구에서 또래관계

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특성으로 낮은 자아탄력성을 보고하였으며, Choi, Jhin과 Kim (2001)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에게서 유의하게 자아탄력성이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ur (2004)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와 자아개방, 공감적 이해의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나 사회성 발달 및 또래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Lee (2012)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자아탄력성이 또래 관계의 갈등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또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성을 추정하였으며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한 개념적 틀은 Figure 1과 같다.

4.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에 각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가장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 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은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통해서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완전 매개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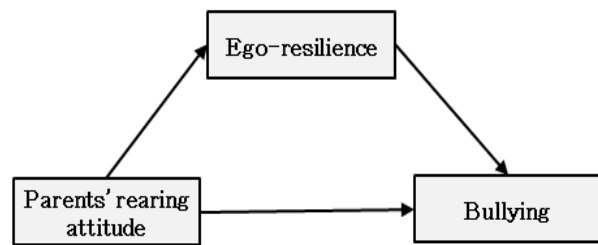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mediating effect).

5. 용어정의

1)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소외시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음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Khu, 1999), 본 연구에서는 Choi와 Chae (2000)가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

집단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개 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Choi와 Chae (2000)가 개발한 집단따돌림 피해척도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집단따돌림 경험을 가끔 당하였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당하였다, 일주일에 여러 번 당하였다에 응답한 학생을 말한다.

3)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Rohner (1991)가 개발한 수용-거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으로 구성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Sung (1993)이 번안하고 Park (201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Block & Kremen, 1996),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 (1996)의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자아탄력성 척도를 Park (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개 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Choi와 Chae (2000)가 개발한 집단따돌림 피해척도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집단따돌림 경험을 가끔 당하였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당하였다, 일주일에 여러 번 당하였다에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설문지에서 집단따돌림 경험이 전혀 없었다로 응답한 설문지와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0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위한 표본의 크기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20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Jackson (2003)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부분으로 성별, 학년, 경제적 수준, 성적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5문항, 부모의 양육태도 10문항, 집단따돌림 정도 15문항, 자아탄력성 14문항으로 총 44문항이다.

1)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Rohner (1991)가 개발하고 Sung (1993)이 번안하고 Park (2010)이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용-거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임을 의미한다. 수용적 차원은 존중과 이해, 애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이며, 거부적 차원은 무시, 학대, 무관심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이다. 자율적 차원은 책임을 강조하고 자율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이며 통제적 차원은 지시, 지배, 금지, 억압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이다. 역채점 문항은 4, 5, 6, 9, 10번 문항이다. Park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였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 (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Park (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총 5개 하위요인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척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다. Park (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3) 집단따돌림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의 피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i와 Chae (2000)가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집단따돌림을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으로 구분하여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었다가 0점, 가끔씩 1점,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2점, 일주일에 여러 번은 3점을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경험의 정도가 큼을 나타낸다. 소외형은 은밀하고 은근하게 무리를 지어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유형이고 언어형은 놀림, 조롱, 욕을 하거나 협박하는 유형으로 주로 언어로 고통을 주며 따돌리는 유형이며, 신체형은 강제적인 심부름, 신체를 이용한 심한 장난, 강탈, 구타가 위주가 되는 따돌림 유형이다. Choi와 Chae (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2일부터 30일까지로 일 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3개교의 교장, 교감, 교무부장의 승낙을 받고 연구자가 직접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지 작성요령과 유의 사항, 연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충분히 설명하고 미리 제작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자료의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연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아동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자기보고법으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작성 소요시간은 약 25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상관을 분석하였고, AMOS 19.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고, 서로 포함관계(nested relationship)에 있는 모형들을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크

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Table 1을 통해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52%, 여학생이 48%였고, 5학년이 50.5%, 6학년이 49.5%였다.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72.3%, '잘사는 편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24.2%, '가난한 편'은 3.5%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 65.8%, '상' 20.8%, '하' 13.4%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편'으로 응답한 학생이 59.9%,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은 26.7%, '나쁜 편'은 13.4%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Boy	105 (52.0)
	Girl	97 (48.0)
Grade	5th	102 (50.5)
	6th	100 (49.5)
Economic status	Good	49 (24.2)
	Moderate	146 (72.3)
	Poor	7 (3.5)
Subjective school record	Top	42 (20.8)
	Middle	133 (65.8)
	Bottom	27 (13.4)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21 (59.9)
	Moderate	54 (26.7)
	Poor	27 (13.4)
Total		202 (100.0)

2.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집단따돌림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집단따돌림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부모 양육태도의 평균은 37.0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35.7, 집단따돌림의 평균은 21.4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r = .33, p < .001$)은 정적 상관관계,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r = -.38, p < .001$),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r = -.43, p < .001$)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매개 모형의 검증

연구 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간에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부분 매개 모형이다. 경쟁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통해서만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가정하는 완전매개모형이다. 이들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지 알아보고 더 좋은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분 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은 Figure 2이며, 완전 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은 Figure 3과 같으며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의 모수추정치는 Table 3과 같다.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에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Table 4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조사하였다. 모형적합도 검증에서 RMSEA 값은 .05에서 .08 사이면 적합한 적합도라 볼 수 있고,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 판단할 수 있는데(Browne & Cudeck, 1993) .087은 비교적 적합한 수준이라 볼 수 있었으며, TLI와 CFI의 경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Hong, 2007),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 모두 .90 이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절한 모형인가를 밝히기 위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내재된(nested) 경우 χ^2 차이를 검사하는데, 이 때 영가설은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서 두 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Hong, 2007). Table 4에 제시된 결과

를 보면 두 모형의 χ^2 차이값은 14.549이며, 자유도의 차이값은 1이다. 이는 자유도의 차이인 1에 대한 χ^2 차이의 임계값인 3.841보다 크기 때문에 양쪽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구 가설을 선택하는데 이 때 χ^2 검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복잡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간단한 모형을 선택하므로(Hong, 2007),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더라도, 그 효과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Table 5에 제시된 총효과분해표를 살펴보면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직접적으로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효과는 -.324,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은 -.085로 나타났다. 다중상관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이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11%이며 집단따돌림을 설명하는 정도는 22.5%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b)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때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a = .258, $p < .001$), 자아탄력성 역시 집단따돌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85, $p < .01$).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부모 양육태도가

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 of Bullying,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Ego-resilience (N=202)

Variables	M±SD	Parents' rearing attitude	Ego-resilience	Bullying
Parents' rearing attitude	37.0±6.15	1		
Ego-resilience	35.7±8.64	.33***	1	
Bullying	21.4±8.65	-.43***	-.38***	1

*** $p < .001$.

Table 3. Parameter of Partially Mediated Model and Fully Mediated Model (N=202)

Model	Path	B	SE	t	β
Partially mediated model	Ego-resilience ← Parents' rearing attitude	0.258	0.070	3.69***	0.332
	Bullying ← Ego-resilience	-0.485	0.155	-3.13**	-0.256
	Bullying ← Parents' rearing attitude	-0.477	0.137	-3.49***	-0.324
Fully mediated model	Ego-resilience ← Parents' rearing attitude	0.269	0.075	3.59***	0.348
	Bullying ← Ego-resilience	-0.722	0.153	-4.73***	-0.379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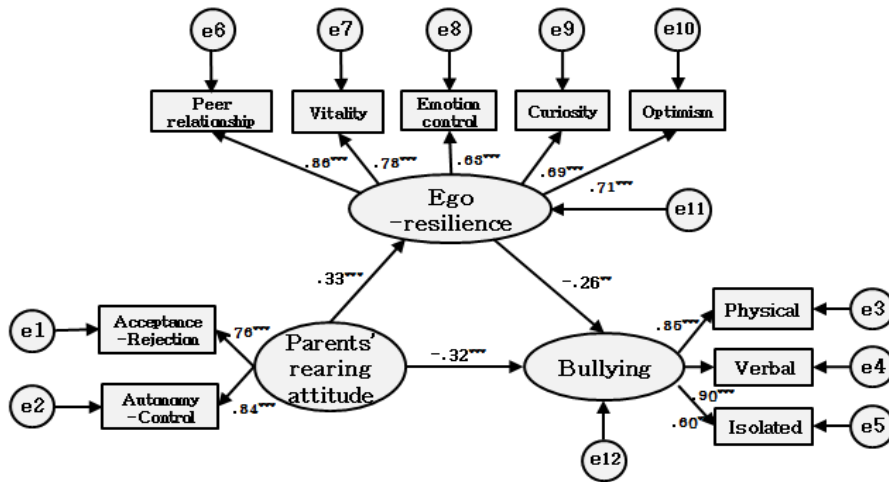


Figure 2. Research model: partially mediated model (standardized beta w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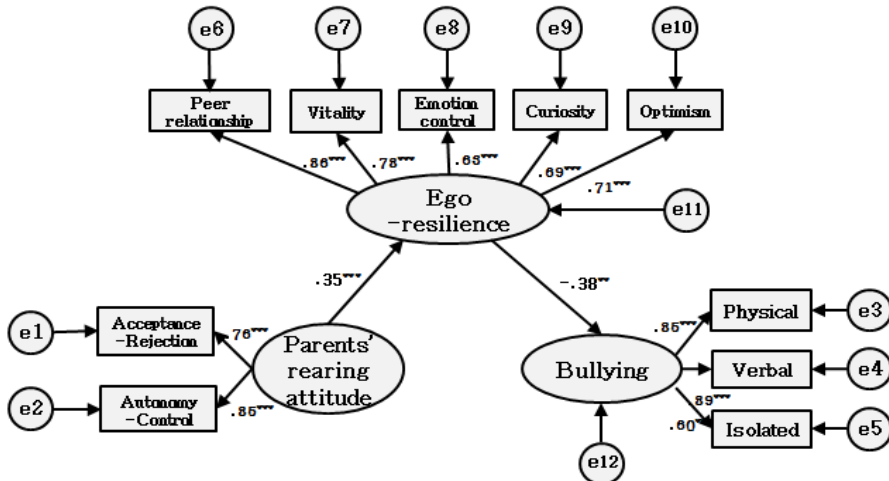


Figure 3. Fully mediated model (standardized beta weight).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하여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085로 나타났다. 이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Sobel (1982)의 Z공식에 의하면 Z값이 양쪽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39, p<.01$).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아동의 외부적 환경요인이라 볼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아동의 내적요인인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검증한 연구이다. 먼저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집단따돌림

Table 4. Goodness of Fit

Variables	χ^2	df	χ^2/df	CFI	TLI	RMSEA
Partially mediated model	80,638	32	2,520	.944	.921	.087
Fully mediated model	95,187	33	2,884	.928	.902	.097

Table 5.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and SMC

(N=202)

Variables	Categori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Parents' rearing attitude	Resilience	.332	-.085	.332	.110
	Bullying	-.324		-.409	.225
Ego-resilience	Bullying	-.256		-.256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환경의 역경과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인 자아탄력성을 길러주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이 자아탄력적이라는 여러 연구(Ha & Lee, 2009; Kim & Kim, 2011)와 부모와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Roh (2010)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둘째,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 통제적일수록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과 Chae (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간의 매우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격적, 무시적, 거부적인 태도일수록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높았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Choi와 Chae (2000)의 연구와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의 피해 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Jung과 Cho (2011)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Choi와 Chae (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수용적이지 못한 태도로 양육되어진 경우 또래에게도 수용되지 못하거나 역으로 따돌림이라는 공격성으로도 표출될 수 있다고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와의 관계, 즉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 정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나 Chae와 Song (2004)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성격특성으로

낮은 자아탄력성을 보고하였고, Choi 등(2001)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무경험 아동에 비해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이 유의하게 자아탄력성이 낮게 측정되어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Hur (2004)와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이고 또래관계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Song (2010)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요인 중 대인관계 요인만이 집단따돌림 피해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집단따돌림 척도가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비교한 집단따돌림과 자아탄력성과의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Roh (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긍정적 또래관계에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완전매개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정적 또래관계에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단따돌림을 부정적 또래관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였을 때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Jung과 Cho (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따돌림 피해 행동과의 관계에서 개인 내적 요인인 자존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개념은 서로 다르나 개인 내적 요인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Kim과 Kim (2011)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본 연구결과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문제를 중재함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개선이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함을 시사한다. 집단따돌림 문제는 단순한 아동의 사회성 부족 문제가 아니며, 피해 아동에 대한 중재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양육태도를 취해 왔는지에 관한 것이며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이 또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아 상의할 수 없을 때 아동은 혼자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지속적으로 그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단시간에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인식의 변화 없이는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집단따돌림 발생 시 아동만을 집단따돌림 문제에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참여와 상담,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과 피해 아동의 부모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따돌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부모들이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자녀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과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파급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집단따돌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기보다 전학을 시키거나 가해학생의 징계조치, 일시적인 상담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 건강전문가들은 부모 교육과 함께 집단따돌림 문제에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을 낮추어 집단따돌림 피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 아동의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길러준다면 집단따돌림의 피해정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집단따돌

림 피해 아동에게 우울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 수준을 측정하여 상담 및 교육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집단따돌림 아동에게 필요한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과 자아탄력성을 관련시켜 수행한 연구와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 문제에 접근하여 개인 내적 자원으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정신 건강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Park (2005)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체계 요인, 가족체계 요인, 학교체계 요인으로 나누어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 요인 중에 부모 양육태도, 개인체계 요인 중 자아탄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이해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의 맥락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자가 보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자 선정을 일개 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일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202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피해 상황이 발생 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는 단순히 아동의 사회성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보건교사 및 지역사회 간호사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 상담 시 자아탄력성에 대한 평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발달, 증진할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운영하여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피해아동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지역의 대상과 성별, 학교급별에 따라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집단따돌림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집단따돌림에 대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집단따돌림에 대한 피해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관찰법, 면접법 등 질적 연구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dolescent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2, April, 23). *2011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Retrieved August 8, 2012, from <http://blog.naver.com/bakbht?Redirect=Log&logNo=156204036>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hae, S. K., & Song, Y. H. (2004). The characteristics of a child who has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8*(2), 1-13.
- Choi, E. S., & Chae, J. H. (2000). A study of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Understanding People, 21*, 109-137.
- Choi, Y. J., Jhin, H. K., & Kim, J. W. (2001). A study on the personality trait of bullying & victimized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1), 94-102.
- Ha, M. S., & Lee, S. B. (2009). The influence of the children-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self elasticity to adjust to school lif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8*(3), 247-258.
- Hong, S. H. (2007).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61-177.
- Hur, J. Y.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resilience, peer relation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Jackson, D. L. (2003). Revisiting sample size and number of parameter estimates: Some support for the N:q hypothe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0*(1), 128-141.
- Jung, H. N., & Cho, O. K. (2011). The role of empathy and self-esteem between parents' parenting behavior and attitudes on bullying.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21*, 87-114.
- Khu, B. Y. (1999). *Causes and prevention of bullying on adolescents*(29). Seoul: Korea Youth Counselling & Welfare Institute.
- Kim, J. S. (2009). *The Relations among the classroom climate, the ego-resilience, and the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H. W. (2011). Psychological and school maladjustment resulted by peer rejection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5), 321-356.
- Kim, K. S., & Kim, H. K. (2011). A study on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2), 143-170.
- Ku, H. M., Hwang, S. T., & Kim, J. H. (2001). The personality traits of ego resilient.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3), 569-581.
- Lee, E. Y.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ommunication style and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2012 The Actual condition based on complete enumeration survey*. Retrieved June 9, 2012, from <http://www.mest.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30338>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Park, E. H. (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y, IQ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Park, E. H. (2010). *The influence of rearing attitude of parents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in school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Park, J. W. (2005). *A study on the ecosystematical factors victimization behavior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Park, J. Y., & Chae, K. M. (2011). The role of parenting behaviors, child's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skills in bullying/being bullied.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30*(1), 45-67.

- Pontzer, Daniel. (2010). A theoretical test of bullying behavior: Parenting, personality, and bully/victim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3), 259-273.
- Roh, E. S. (2010).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Rohner, R. P. (1991).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ory*. NY: Sage Publication.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ong, H. R.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p ostracizing and adolescent's ego-resiliency and schoo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Sung, Y. H. (1993). *The effects of parental social support system on children's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